현대북한연구, 15권 2호(2012), © 2012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7~51.

북한 시문학 연구 성과와 현황

이지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논문은 지난 20년간 축적된 북한 시문학 연구사를 정리하고 검토하면서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경향은 대립항적 연구, 내재적-객관적 연구, 문학론적 연구,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등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대립항적 연구는 남북한체제를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북한 문학을 비판하는 논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 1990년대 초기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내재적-객관적 연구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북한 문학을 객관적 · 실증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문학론적 연구는 각론으로서 북한 문학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미시적이고 섬세한 분석틀보다는 내재적-객관적 방법을 장르나 작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북한 시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사상성과 서정성의 결합이기에 문학성을 탐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문학의 차이를 강조하는 장르론에서 내재적 원리로서 장르 변화 과정에 주목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장르론적 연구 결과의 양적 · 질적 성과가 모아졌다. 근대성 구현 양상을 살피는 작품론적 성격을 지니는 연구와 함께 월북 시인론 및 재북 시인론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방법은 남북한 문학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민족적 연대를 회복할 연결고리를 모색하고, 민족 문학 내지 통일 문학으로서 접근하자는 움직임과 관련된다. 북한 문학 연구 초기부터 잠재되어 있던 방법으로서, 리얼리즘의 역동성이 구현된 서정시나 이념적 성향이 약화된 서정시 연구

를 통해 민족적 원형질의 요소를 찾고, 연대의식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체제 대결적 인식을 바탕으로 남한과 서구문학의 잣대에서 북한 문학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작동원리로 이해함으로써 북한 문학 연구 방향은 점차 실증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시적인 각론의 연구 성과는 총론적 연구 성과에 비하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매우 적은 편이다. 자료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 집중성과 전문성의 문제는 북한 문학 연구자들의 공통 과제로 남는다.

주제어: 북한 시문학, 대립항, 내재적-객관적, 문학론적 접근, 민족의 동질성, 양적 팽창, 질적 빈곤

1. 서론

문학 연구는 문학작품 외적인 요소, 즉 작가와 사회, 역사, 이데올로기와 같은 요소를 인과 선상에 놓거나 문학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북한 문학의 경우 작품 자체에 주목할 때조차 외적 요소가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적 인과를 분석해내려는 노력과 분리되기 어렵다. 북한 문학이 지니고 있는 태생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맹목적 부정의 대상이었던 북한은 협력자에서 동반자에 이르기까지 입장에 따른 인식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에서 유지된다. 동일 문화권 내 지역적 차이에 기인하는 방언과 달리, 이질적인 언어 사용을 보여주는 북한 문학은 민족의 정체성에 균열을 가져왔다. 언어보다

더 뚜렷한 차이를 지니는 것은 각자의 체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북한은 오랫동안 언어, 문화, 정치, 역사적 동일성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이질성 가운데서도 동질성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분열의 상황에서 공동체적 요소를 탐색하는 작업은 정치보다 문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북한 문학 연구는 처음에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북한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88년 월북 작가 해금(解禁) 이후였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1] 월북 작가 해금 이후에야 정책적인 차원에서나 순수 학문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 역량이 축적될 수 있었다.

박상천은 1981년 국토통일원에서 간행한 『북한의 문화예술』이 나온 이후의 북한 시문학 연구 경과를 정리한 바 있다. 그는 '대립적·비판적 인식의 단계', '객관적 실상 연구의 단계', '방법론 탐구와 통일문학·민족 문학 모색의 단계'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한다.[2] 대립적·비판적 인식의 단계는 남북한의 체제 대립과 대결의식에서 북한 문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함의한다. 객관적 실상 연구의 단계는

---

1) 북한 문학 연구자가 부딪히게 되는 난관은 첫째, 북한의 문학작품을 직접적으로 접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북한에서 간행된 문학사가 일방적인 강요사항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주체사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체문예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김윤식, "북한 문학 50년의 비평사적 검토," 『북한문학사론』(서울: 새미, 1996), 83~85쪽.

2) 박상천은 시기와 경향이 결합된 용어로서 '단계'를 제시한다. 그동안의 연구를 시기로 구분하지 않고 단계로 구분하는 까닭은 기준이 되는 시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기에도 서로 다른 경향의 연구들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천, "북한 문학 연구의 경과," 『민족학연구』, 제4집(2000), 41~42쪽.

월북 문인 해금 이후 북한 문학이 대규모로 소개되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남북한 문학의 이질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문학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립적·비판적 인식 단계에서 객관적 실상 연구 단계로 진전한 계기는 1988년 월북 문인 대부분이 해금된 7·7 특별선언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 전후에 이르러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와 통일 문학·민족 문학 모색의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적 시기 구분은 남한의 정치적 사건이 북한 문학 연구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여준다.[3] 많은 문예지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 북한 문학에 대한 특집을 마련하고 북한 작품 및 문예이론서를 쏟아냈다.

북한과의 정치적·정책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부침을 겪어온 북한 문학 연구의 흐름에서 연구 대상인 북한 문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엔 북한 문학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의 무게는 크기 때문이다.

남송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북한 시문학 연구 현황을 거시적인 북한연구방법론을 원용해 접근한다.[4] 전체주의적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내재적-비판적 접근법과 같은 북한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

3) 김성수 또한 일련의 정치적·정책적 사건을 기준으로 연구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북한 문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1980년대 말의 월북 작가 해금과 '북한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소개 차원의 첫 번째 단계를 거쳐 1994년 남북 합의서 체결을 전후한 시기의 김윤식, 김재용의 연구서와 비평자료집이 나온 두 번째 단계를 거쳐 이제 2000년 6월의 남북공동선언 이후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김성수,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제3집(2000), 48쪽.

4) 남송우,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39집(2005).

2000년 이전의 북한 시문학 연구를 '전체주의적 접근에서 내재적 접근'을 통해 정리하고, 2000년 이후를 '내재적 접근에서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 자체가 문학연구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지만 북한 문학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연구사 정리의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 문학 연구가 정책적·정치적 요소의 파고 아래에서 부침 현상이 있어 왔지만 문학적 성과 또한 꾸준히 축적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동시대 연구라 할지라도 방법론적인 혼용이 있었던 현상에 비추어 시기별로 연구사를 구분하기보다는 연구 방향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행 연구사 정리 업적을 포괄하면서 '대립항적 북한 시문학 연구', '내재적-객관적 북한 시문학 연구', '문학론적 접근의 북한 시문학 연구',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 시문학 연구' 등 네 가지 경향으로 연구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2. 북한 시문학 연구 성과와 현황

1) 대립항적 북한 시문학 연구

대립항적 연구는 박상천이 대립적·비판적 인식의 단계로 설정한 것과 남송우가 전체주의적 접근으로 본 것을 통합한 관점이다. 전체주의 접근법이란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독보적인 북한연구방법론이었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본질로 파악되었던 전체주의 개념을 사회주의 국가로까지 확대시킨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을 인류공동체의 절대 선인 민주주의 대

절대 악인 전체주의의 대결로 치환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사회를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인 것이다. 이 접근법은 철저한 반공주의 시각에서 북한 사회 전체를 특징지으려는 기조를 띤다.[5]

'대립항'으로 북한 문학을 연구하는 관점은 남북의 체제를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북한 문학을 비판하는 논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서, 남한과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냉전적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북한 문학을 보는 방식과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남북한 문학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대립항으로 북한 문학을 보았던 연구들은 우선 북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황하에서 월남 문인이 북한에서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잡지에 발표하거나,[6] 국가 주도의 연구활동으로서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전의 연구는 학문적 영역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북한의 실정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문학적 관점이라기보다는 북한 문학의 실상을 고발하는 수준이었다.[7] 북한 문학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1년 국토통일원에서 간행한 『북한의 문화예술』부터이다. 대립적 인식과 비판은 김대행의 『북한의 시가문학』과 "장르로 본 북한의 시가문학"을 비롯해 구상의 "북한의 시", 성기조의 "북한의 시문학 40년사 연구",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적 무기의 역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8]

---

5) 노동일·김진향, "북한연구방법론 고찰," 『평화연구』, 제23집(1998), 91~92쪽; 남송우,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61쪽 재인용.

6) 박상천, "북한 문학 연구의 경과," 43쪽.

7) 전영선,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현대북한연구』, 제7권 3호(2005), 154쪽.

8)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5); 김대행, "장

김대행의 『북한의 시가문학』은 월북 문인 해금 이전 북한 시문학 연구 분야의 첫 저술이다. 이를 보완해 1990년에 출간한 『북한의 시가문학』[9]에 이르기까지 김대행이 밝힌 북한 시문학의 특수성은 북한의 문예정책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이론이나 문학연구에 이르기까지 당 정책과 김일성 교시에 의해 방향성이 규정되어 합목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김대행은 북한의 모든 문학 창작이나 연구는 여섯 가지 원칙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 민족적 특성의 원칙,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칙, 군중예술의 원칙, 작가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의 원칙, 작가 예술인에 대한 당의 영도의 원칙이 그것이다.[10] 그렇기에 북한에서는 순수문학이 존재할 수 없고 낭만적 문학성이 상실되어 있어 대단히 경직된 목적론적 문학관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시가문학은 한결같이 김일성의 찬양이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본다. 저급하고 단조로운 수준에서 획일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후퇴와 낙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11]

성기조는 시를 포함한 문학이란 근본적으로 정서의 결정이며 정서를 떠나서는 문학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그동안의 북한 시는 문학과 사상 모두를 잃은 채 오직 당 정책의 선전 수행에 필요한 '선전문' 작성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한

르로 본 북한의 시가문학," 『북한』, 4월호(1986); 구상, "북한의 시," 『시대문학』, 창간호(1987); 성기조, "북한의 시문학 40년사 연구," 『북한』, 7월호(1987); 성기조,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적 무기의 역할," 『북한문화예술 40년』(서울: 신원문화사, 1989).

9)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10) 김대행, "장르로 본 북한의 시가문학," 72쪽.

11) 위의 글, 77쪽.

다.[12] 이러한 논조를 이어 북한 시는 문학의 본질적인 면에서 창작예술로 볼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시는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한다.[13]

남북한 비교를 통해 북한 시문학에 접근한 연구에는 박철석의 "남북 시문학 비교 연구"[14]가 있다. 북한의 시는 운율의 전경화(前景化)가 이루어지고, 시의 비유와 상징은 관습적이어서 참신성을 잃고 있으며, 시의 소재는 종자론에 의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남한의 시와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비교 대상이 1980년대 남한의 민중시 내지 노동시라고 하고 있지만, 남한 시의 텍스트가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시의 이질적인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수가 따른다. 게다가 이질성 극복의 한 측면이 서정성임에도 1980년대 북한 시의 서정성에 대한 언급이 몇 마디 말로 축약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남한시의 대립항으로서 북한 시를 위치시키는 입장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88년 월북 문인 해금 이후 납·월북 작가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어 해금 이후 식민지 시대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냉전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서의 행적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거나, 문학성을 포괄하는 미학적 측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국비평문학회의 『혁명 전통의 부산물: 납·월북 문인 그 후』[15] 또한 1920~1930년대 명성을 날렸던 상당수 작가들의 월북 이후 행로를 추적하는 과정을 '체제 아부꾼들의 말

12) 성기조, "북한의 시문학 40년사 연구," 146쪽.

13) 성기조,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적 무기의 역할," 17쪽.

14) 박철석, "남북 시문학 비교 연구," 『동아논총』, 제30집(1993).

15) 한국비평문학회, 『혁명 전통의 부산물: 납·월북 문인 그 후』(서울: 신원문화사, 1989).

로'라는 다소 선정적인 항목 아래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의 북한 시문학 연구는 탈냉전의 환경변화에도 냉전의 대립적 시각이 유지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최근의 대립항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김용직의 『북한문학사』이다.[16] 김용직은 해방 직후부터 민주건설기, 한국전쟁기, 유일체제사상기를 거쳐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시기에 이르기까지 북한 문학의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문학사 시기 구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점, 북한이 서술한 문학사를 배제한 점, 황장엽의 증언을 논거로 삼은 점 등은 북한 문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로 노정된다. 『북한문학사』는 시와 소설, 희곡을 망라한 문학사이기에 시문학의 사적 흐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문예정책과 이론 및 여타 장르의 전개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다. 주관적이고 자화자찬적인 북한식 평가에 기대기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은 대립항적 연구 경향이 보여준 단순한 체제 대결적 인식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립항적 연구는 북한 시문학의 실상을 자세히 알리려는 종합적인 접근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시문학이 서로 괴리되어 있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문학의 이질성은 문제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연결될 수 있기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지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16) 김용직, 『북한문학사』(서울: 일지사, 2008).

2) 내재적-객관적인 북한 시문학 연구

북한연구방법론에서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자기발전논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북한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일상화된 특수한 발전 경로를 탐색하는 방식이다.[17]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내재적 접근법은 냉전적 시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적 시각을 모색한 것이다.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공과 반북의식, 자유민주주의의 잣대가 아니라 북한이 설정한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접근법이다.[18] 북한 문학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다. 즉 북한 문학을 부정했던 입장과 달리, 학문적 대상으로 북한 문학을 파악하려는 것이 '내재적-객관적 접근'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 규정하는 '내재적-객관적 접근'은 북한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학의 가치를 매기는지 이해하고, 정치체제에 종속된 상태에서 북한 문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 문학의 이질성의 기원인 체제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북한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자료 개방 이후 1990년대 초 북한 시문학 연구는 6·25전쟁 문학을 중심으로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논의에는 윤여탁의 "한국전쟁 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 홍용희의 "1950년대 남

17) 노동일·김진향, "북한연구방법론 고찰," 97~98쪽; 남송우,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61~62쪽 재인용.

18)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 2003), 14~15쪽.

북한 시의 비교 연구” 등이 있다.[19] 이들 논의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남북한 시문학이 지니는 특징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윤여탁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얽매였던 이전 시기의 왜곡된 편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북한 문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지만 너무 간략하고 개괄적이라서 1950년대를 입체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홍용희는 1950년대 전쟁 시기는 남북한 각각 지배체제 이데올로기를 사회의 정신 습속으로까지 내면화시켜 강제체계에서 동의체계로 변모시켜낸 점에 주목했다. 전쟁 시기의 남북한의 시문학 역시 전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통해 ‘타자의 동일자화’ 과정을 수행한 공식적인 담론 기제였던 것이다. 1950년대 전쟁에 대응한 남북한의 시문학의 성격과 특징을 분단 문학의 원형으로서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1990년대를 전후해 대립항적 연구 경향이 공존하는 가운데 북한 문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내재적 접근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김재홍은 “북한 시의 한 고찰”[20]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강화해갔으며 남한은 남한대로 자유주의적 다양성 속에서 순수 편향성과 예술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민족문학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한 시의 이념지향성은 문학이 정치의 수단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예술관의 대원칙 위에 놓여 있어 사회주의적 내용

19) 윤여탁, “한국전쟁 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 『한국현대시사의 쟁점』(서울: 시와 시학사, 1991); 홍용희, “1950년대 남북한 시의 비교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0) 김재홍, “북한 시의 한 고찰,” 『카프시인비평』(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을 민족적 특성화 내지 민족적 양식화하는 데 북한의 시는 남한과는 다른 독자성이 있음을 긍정한다. 당의 문예정책에 의해 지도 감독되면서 계획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추동되는 북한 문학은 작품 경향이나 창작태도 면에서 이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문예이론의 관점에 따라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논의에는 김재홍의 "해방 40년 남북한 시의 한 변모", 홍용희의 "해방 50년 북한 시의 역사적 고찰", 손광은의 "북한 시의 위상과 동질성 회복 문제", 윤여탁의 "북한 시사의 정리", 김재용의 "서정성과 산문화 사이에서" 등이 있다.[21]

김재홍은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10년 주기로 남북한 시를 대응시켜 남북한 시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손광은은 『조선문학사』의 시기 구분을 적용해 남북한 시문학을 대비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윤여탁은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는 통시적 관점을 보여준다. 김재용 또한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북한 시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홍용희는 공식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의 반영과 재생산의 문화적 장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북한 시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 논의는 홍용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시문학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식하는 문학의 위상과 그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22]

---

21) 김재홍, "해방 40년 남북한 시의 한 변모," 『한국현대시사의 쟁점』(서울: 시와 시학사, 1991); 홍용희, "해방 50년 북한 시의 역사적 고찰," 『시와 시학』, 겨울호(1995); 손광은, "북한 시의 위상과 동질성 회복 문제," 『용봉논총』, 제24집(1995); 윤여탁, "북한 시사의 정리," 『시와 반시』, 겨울호(2000); 김재용, "서정성과 산문화 사이에서," 『분단구조와 북한 문학』(서울: 소명출판, 2000).

22) 홍용희, "해방 50년 북한 시의 역사적 고찰," 140쪽.

총론적으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살피는 논저 외에 북한 문학의 이론적 근간인 정치사상과 문예이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논의 또한 구축되었다. 정유하의 "60년대 북한 시문학의 특성과 전개 양상", 염철의 "1970~1980년대의 북한 서정시 고찰", 송명희의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 박은미의 "주체사상 시기의 북한의 시 연구" 등은 주체사상과 문학적 형상화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을 보여준다.[23]

정유하와 박은미는 북한 시의 긍정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성급한 결론에 이른 점에서 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24]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벗어나 학문적 영역에서 북한 문학을 다룬다고 할 때 과학주의적 태도가 견지되어야 한다. 내재적인 방법이 성급한 긍정성을 도출하게 된다면 역편향이 될 수 있다. 염철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김정일이 문예정책을 주도하면서 이전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성이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 질적

23) 정유하, "60년대 북한 시문학의 특성과 전개 양상," 이명재 편, 『북한 문학의 이념과 실체』(서울: 국학자료원, 1998); 염철, "1970~1980년대의 북한 서정시 고찰," 이명재 편, 『북한 문학의 이념과 실체』(서울: 국학자료원, 1998); 송명희,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집(1999); 박은미, "주체사상 시기의 북한의 시 연구," 『겨레어문학』, 제30집(2003).

24) 정유하는 1960년대는 주체문학의 전초기지의 시기이지만 외세에 대한 자주성이 구현되어 있고, 민족적 입장에서 분단 비극의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다고 긍정한다. 그러나 북한이 정의하는 자주성과 일반적인 자주성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어법의 차이를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가 주체문학의 원형적 공간이라면 자주성의 개념은 분명히 주체사상의 생성 과정과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은미는 1980년대 북한 시에서 서정성이 실험되었다면 남한에서 민중의 현실과 참여를 부르짖는 시들이 창작된 점에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전제를 세운다. 북한의 서정성 실험에 대한 내적 근거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의 리얼리즘 미학과 결부지어 동질성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실증적이고도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반면에 송명희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을 대신한 주체문예이론이 '공산주의적 인간학'과 '종자론' 등의 이론틀로 구체화되는 과정과 텍스트 분석을 연계한 실증적 분석을 보여준다. 주체문예이론은 '혁명적 수령관'의 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수령형상시'라는 장르를 등장시켰다. 송명희는 수령형상시에서 김일성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고찰하면서 봉건적 담론을 기초로 형성된 성군 이미지와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수령과 당, 인민의 혈연적 관계가 강조됨을 고찰하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에 의거해 수령형상시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정치 원리와 결합한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논의의 한계점과 별도로 북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가운데 동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내재적 접근을 보여주는 연구에는 이경영의 "1990년대 북한의 서정시 연구", 이성천의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시의 행방", 강정구의 " '노동'을 소재로 한 최근의 북한 시" 등이 있다.[25]

이경영은 1990년대 북한 서정시가 생활 체험과 '혁명적 순결성'을 중시하고 있음에 우선 주목한다. '혁명적 순결성'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관련한 것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투를 막으려는 시도와

25) 이경영, "1990년대 북한의 서정시 연구," 『어문학』, 제84집(2004); 이성천,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시의 행방," 김종회 편, 『북한 문학의 이해 3』(파주: 청동거울, 2004); 강정구, " '노동'을 소재로 한 최근의 북한 시," 김종회 편, 『북한 문학의 이해 3』(파주: 청동거울, 2004).

관련이 있다. 이때 눈여겨볼 만한 것이 분단 이후 북한에서 거의 사라졌던 시조의 창작이다. 1995년 『조선문학』에 실린 창작 시조는 종장 율격의 파행성이나 고투 답습의 측면과 별도로, 시조 자체에 대한 관심 역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의 결과이자 전통 장르에 관한 관심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덕정치', '광폭정치'와 같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한 시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동시대와의 시간 차이를 줄여나가, '현재'의 북한 문학 또한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성천은 선군혁명정신과 반제 반미 사상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북한 문학의 기본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양상을 밝히고 있으며, 강정구는 북한 시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여전히 주체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에 무한히 충성하는 근로자라고 보고 있다. 선군혁명문학에서도 여전히 노동을 소재로 생산을 격려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내재적-객관적 연구 성과 가운데 신형기·오성호의 『북한문학사』는 북한 문학의 변모 과정을 '이야기의 역사'로 적용해 서술한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26] 이야기는 대중적 나르시시즘을 북돋는 동원으로서, 서사적 구속으로 북한 문학의 특성을 형성한다. 『북한문학사』는 당 문학의 건설사, 당 문예정책의 건설 과정, 주체문예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로 보는 자기완결적 주체문예론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27] 치밀한 논증을 통해 북한 문학 전체의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조망할 수 있는 점은 분명 큰 성과라 할 것이다.

---

26)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서울: 평민사, 2000).

27) 김성수,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53쪽.

소설과 통합된 문학사가 아니라 시문학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오성호의 『북한 시의 사적 전개 과정』이 있다.[28] 그는 북한 시의 역사적 변모 과정을 평화적 건설기, 전쟁기, 전후 복구건설기, 천리마시대, 주체시대, 수령 사후 등 모두 여섯 시기로 나누어 시문학이 본래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북한문학사』와 거의 동일한 논조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식 시대구분을 그대로 적용한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 그러나 내재적 연구의 측면에서 시문학만을 대상으로 역사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내재적-객관적 연구방법을 보여주는 학위논문으로는 이경영의 "한국전후시 연구", 우대식의 "해방기 북한 시문학 연구", 이지순의 "북한 시문학의 이데올로기적 담론구조 연구", 박순선의 "북한 서정시 연구" 등이 있다.[29]

이경영은 주제를 드러내는 형상화 과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전후시 양상을 비교·고찰한다. 북한의 전후시는 '전쟁의식 확산과 투쟁의식', '경제복구와 노동력의 고취', '찬가와 송가', '조국통일과 분단의 형상화', '민족 정서와 목가적 서정'으로 분석되었다. 논자는 남북한 전후시가 분단 인식을 기반으로 통일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러나 비교기준 설정의 모호성과 전후시라는 제한성으로 북한 시문학의 본질적 양상을 살피기는 어렵다.

---

28) 오성호, 『북한 시의 사적 전개 과정』(서울: 경진, 2010).

29) 이경영, "한국전후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우대식, "해방기 북한 시문학 연구"(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지순, "북한 시문학의 이데올로기적 담론구조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순선, "북한 서정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우대식은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해방 후부터 1946년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민주개혁이 단행되어 사회모순을 제거하는 1947년 초까지, 민주기지론의 완성태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전쟁 전까지 모두 세 시기로 구분해 현실 인식을 고찰한다. 북한 문학의 형성과 기원 과정을 해방기 공간을 통해 고찰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시기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미학적 분석이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지순은 체제 담론 형성 과정을 통해 북한 시문학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건설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에 주목하고, 영웅의 이야기 형식이 노동영웅과 군사영웅을 통해 동원 이데올로기로 호명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로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시의 변화 양상을 살피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다.

박순선은 북한의 대표적인 현대시를 수록한 『해방 후 서정시 선집』(1979)을 중심으로 북한 문학의 전개 과정을 개관한다. 선집에는 월북·재북 시인과 해방 이후 문단에 나온 북조선작가동맹 소속 시인들 또는 1950년대의 신진 세대들이 망라되어 있다. 대개의 시인들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문학적 수련 과정을 거쳤기에 전반적으로 시적 형상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성에 힘입어 뛰어난 정치적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작품집을 분석 대상으로 했음에도 미학적 변화 양상을 꼼꼼히 분석하기보다 북한 시의 흐름을 개관한 데 그치고 말았다.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의 발전적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학위논문의 축적이다. 시문학 부문의 학위논문은 유사 논문의 성격을 지니는 석사

학위논문과 위에서 언급한 박사학위논문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30] 점증하는 관심에 비해 주목할 만한 성과는 오히려 빈곤하다 할 수 있다. 북한 문학 연구방법에 대한 숙고와 관심이 지속되어야 이러한 축적의 빈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북한 문학 연구 또한 양적인 팽창을 이룬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9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내재적-객관적 연구 방식으로 냉전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와 전혀 다른 정치체제와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의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함으로써, 맹목적인 부정의 시각이 아닌 학문의 영역으로 북한 문학을 끌어올리게 했으며, 통시적인 개관에서 공시적인 접근에 이르기까지 북한 문학의 위상과 실제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내재적-객관적인 방법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의미한 연구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학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각론으로서 세부적으로 검토되는 양상도 형성되었다.

3) 문학론적 접근의 북한 시문학 연구

가치중립적 접근법은 북한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남북한

30) 한춘우, "북한 서정시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신행자, "북한 서정시 연구"(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윤은애, "북한 시문학의 서정성 연구"(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지민, "북한 서정시 연구"(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등은 주제 및 방법론 등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학문적 성과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김경숙의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북한 현대시사』를 중심으로 다음 항목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의 정치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양극성과 인지적 왜곡 때문이다.[31]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내재적-비판적 접근법의 요소와 절충될 수밖에 없다. 북한 사회의 이념과 작동원리를 일방적으로 서술하는 흐름과 구분하기 위한 '내재적-비판적 접근'은 연구 대상을 내재적으로 이해한 뒤에 외재적 기준을 가지고 검토, 비판하는 것이다. 즉 북한 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비판적 해석과 평가를 내리는 입장인 것이다. 연구 대상이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동원되는 이론적 자원은 문학비평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문학연구방법에는 작가의 전기적 생애나 문헌학적 자료에 바탕을 두어 해석하는 방법, 작품 자체를 세밀하게 읽고 분석해 문학성을 찾아내는 방법,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문학론적 접근의 북한 시문학 연구는 일반적인 문학연구방법을 적용해 각론으로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인 것이다. 장르와 월북 작가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할 수 있다.

장르론의 관점에서 처음 주목한 연구자는 김대행이다. 그는 북한에서 시는 '읽는 시'보다는 '노래하는 시'가 중시된다는 이유를 들어 시가로 통칭한다. '노래하는 시'가 중시된 것은 전체 인민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이라야 참다운 문학이라는 인민성의 원칙과 군중예술론의 지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32] 운율을 중시한 북한 시문학의 장르적 특성을 논의했던 김대행 이후, 장르적 특징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김준오의 "조선족 문학·한국 문학·북한 문학의 동질성과 이질

31)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13쪽.

32)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14~15쪽.

성”, 김용락의 “북한 시의 이론적 특성에 대하여”, 오성호의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 김영철의 “북한 현대시의 장르론적 고찰”, 박태상의 “새로 발견된 북한『서정시 선집』연구”, 김경숙의『북한현대시사』와 “개작 과정을 통해서 본 1950년대 북한 서정시의 특징”, 이선이의 “1990년대 북한 서사시의 변화와 한계”, 한금화의 “북한 서사시의 특성과 창작 양상”, 신형기의 “서사시와 멜로드라마” 등이 있다.[33]

먼저 김준오는 삶의 과정과 조건을 제재로 한 서술시를 한국 전체 시가의 전통형식으로 보고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환경을 고려해 남북한과 조선족 시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정리한다.[34] 특히 북한의 장르의식은 서정시와 서사시 사이의 한계를 가릴 수 없는 잡종을 ‘변태적 장르’로 매도할 만큼 탈장르적 징후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리듬과 서정을 시의 공통된 요소로 본 북한은 서사시에서도

33) 김준오, “조선족 문학·한국 문학·북한 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한국문학논총』, 제20집(1997); 김용락, “북한 시의 이론적 특성에 대하여,”『시와 반시』, 겨울호(2000); 오성호,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배달말』, 제28집(2001); 김영철, “북한 현대시의 장르론적 고찰,”『국어국문학』, 제135호(2003); 박태상, “새로 발견된 북한『서정시 선집』연구,”『북한 문학의 동향』(서울: 깊은샘, 2003); 김경숙,『북한현대시사』(파주: 태학사, 2004); 김경숙, “개작 과정을 통해서 본 1950년대 북한 서정시의 특징,”『한국문학연구』, 제5호(2004); 이선이, “1990년대 북한 서사시의 변화와 한계,”『북한 문학의 이해』(파주: 청동거울, 1999); 한금화, “북한 서사시의 특성과 창작 양상,”『겨레어문학』, 제30집(2003); 신형기, “서사시와 멜로드라마,”『통일연구』, 제8권 제1호(2004).

34) 김준오는 남한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주류화된 민중시, 1980년대 중반의 노동시는 모두 서술시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경향의 시에서도 서사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경우 서사시와 송가가 당위적 장르로 부상한 측면에서 보자면, 혁명이나 전설 투쟁을 위해서 서술시의 선택은 필연적이었다. 조선족의 경우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역사적 시련, 특히 유·이민생활은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더라도 서술시의 채용이 필요충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다. 김준오, “조선족 문학·한국 문학·북한 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 178～179쪽.

서정성을 매우 강조한다. 서사시의 서정성은 작품세계에 대한 시인의 '개입'이다.[35] 즉 북한 시는 시적 화자의 인격으로 묘사하는 미메시스(mimesis)보다 시인의 인격으로 서술하는 디게시스(diegesis)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서정적 주인공인 '나'는 곧 사회적 자아인 '우리'를 의미한다.[36] 김준오의 장르 연구는 북한 서정시의 '서정적 주인공'을 민족적 특성과 관련해 고찰한 이상숙의 연구에서 세밀히 검토된 바 있다.[37]

세부적으로 서정시 장르론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김용락은 북한 서정시의 형식이나 창작 기법의 장르적 특징은 최종적으로 내용우선주의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성호 또한 북한 시의 흐름을 장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북한 시문학의 중요 장르인 송가, 서사시,

---

35) 위의 글, 143쪽.

36) 김영철, "북한 현대시의 장르론적 고찰," 452쪽.

37) 이상숙의 "북한 문학의 전통론 연구; '민족 형식, 민족적 특성'의 시(詩)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2호(2003); "북한 문학의 전통과 민족적 특성," 『한국어문학연구』, 제46집(2006); "북한 서정시에 나타난 민족적 특성,"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언어와 문학』(경인문화사, 2006)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민족적 성격이 민족적 특성의 핵심으로 논의될 때 대상이 되는 작품은 대개 서사문학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서정시에도 '주인공'으로서의 인물형, 성격, 전형이 중요시되고, 로동계급성, 혁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인물이나 서사시의 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의 논자들이 서정시의 민족적 특성을 서정적 주인공의 민족적 성격, 즉 인민성, 계급성을 체화해 항일혁명전통과 사회주의 혁명의 전형으로 부각되는 민족적 성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고전과 항일혁명전통에서 추출한 인물의 긍정적인 성격을 '영웅'의 형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애국주의', '인도주의', '용감성' 등의 민족적 성격을 강조했다. '사회주의 애국주의'란 민족과 나라, 향토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사회주의 혁명을 앞당기는 절대 선이라는 입론 위에 구축된 것이고, 이 밖에 다른 민족적 성격도 결국은 혁명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긍정적인 품성의 덕목으로, '현재의 요구에 맞추어 권장되는 창출된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항일혁명투사의 긍정적 성격과 함께 강조되는 서정적 주인공의 품성, 즉 민족적 성격으로는 '천리마의 전형'을 들 수 있다.

서정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장르 비평적 차원에서 북한 시문학에 대한 양식 연구에 접근한 것은 김영철이다.

김영철은 북한의 정치적인 흐름이 북한의 시가 창작과 장르 형성에 영향을 끼쳐왔음에 주목하고 북한 시문학의 장르 전반에 걸친 유형적 분석을 보여준다. 그는 북한 시의 장르적 성격을 여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북한 시의 장르 설정은 형태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이 병행되고 있으나 대체로 의미론적 기준이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둘째, 시(詩)와 가(歌)의 미분리 현상으로서 아지프로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래하는 시로서의 양식을 고수하고 있다. 셋째, 자유시 및 산문시의 장르 개념이 약화되어 나타나는데 자유시는 무규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산문시는 음악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등한시되고 있다. 넷째, 서정시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다소 이념지향적인 장르인 송시, 풍자시, 정론시, 벽시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다섯째, 1980년대 이후 탈이념적인 생활 서정시 및 자연 서경시(敍景詩) 같은 시 장르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섯째, 서사시는 북한 시의 중심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이는 항일혁명문학이나 수령형상 창조를 위해 서술 구조를 갖는 시 형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38]

김경숙은 '한국 근·현대 문학사의 큰 줄기를 형성해온 리얼리즘 문학의 연속선'에서 기존의 북한문학사의 시대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다.[39] 논자는 서정시 분석틀을 서정시의 형태,

---

38) 김영철, "북한 현대시의 장르론적 고찰," 456~457쪽.

39) 김경숙이 제시하는 시대구분은 ① 제1시기: 1945~1949년, ② 제2시기: 1949~1953년, ③ 제3시기: 1953~1955년, ④ 제4시기: 1956~1958년, ⑤ 제5시기: 1958년 이후이다. 보통 1950년을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작가들이 직접 느끼는 현실 감각을 드러내주는 부분으로 시기를 잡은 제2시기와 제4

시적 형상화의 대상, 주제의 형상화 방식, 정서적 동일화 방식으로 제기한 후 시기별로 살피고 있으며, 서사시는 서사시의 형태, 화자와 주인공의 관계, 인물의 행동 유형과 신분적 유형, 서사 구조의 전개 양상, 서사시의 주제 등으로 분석틀을 구분해 또한 시기별로 고찰하고 있다. 장르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고찰한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한정되어 있고, 북한 시문학에 편재된 목적의식적 요소가 장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논자가 1950년대 시의 개작 과정을 통해 북한 서정시의 장르적 특성을 고찰한 논의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용악, 박세영, 조벽암이 해방 전에 쓴 작품을 개작하던 시기는 1956~1959년으로 시인들의 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개작의 방향은 주관적인 감상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상성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논자는 시적 형상화의 대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당파성을 확보하고, 주제의 형상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인민성을 강화하며, 정서적 동일화의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전형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개작의 현실적 동기는 전쟁 직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임화 비판에 기인하는데, 이는 시인들이 1950년대의 역사의식으로 1930년대의 현실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사상성을 확고히 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40] 실증적으로 개작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북한의 서정시 장르의 특징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시기 사이의 구분은 기존의 시대구분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1953년과 1958년 사이를 양분한 것 또한 사상성과 예술성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긴장을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40) 김경숙, "개작 과정을 통해서 본 1950년대 북한 서정시의 특징," 271~273쪽.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북한의 서정시 장르의 특성은 박태상이 지적한 한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서정시론은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거론하면서 종국에는 '충성의 서정'을 강조하는 양상이 된다. 북한의 서정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데, 첫째는 북한의 서정시가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집단의식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 정서의 자유로운 표출이 아니라 혁명적 수령관의 표현으로 이어져 창작의 제한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41]

서사시의 장르적 특성에 주목한 논의 가운데 이선이는 1990년대 북한 서사시가 빈번한 대화로 인해 사건 진행과 긴장력을 떨어뜨려 서사 약화를 초래했다고 본다. 서사 약화 현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금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금화는 북한의 서사시는 서사시의 일반적 유형과는 차이가 있는 자의적이고 독특한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기천의 "백두산"과 같이 초기에 창작된 북한 서사시가 항일혁명전통을 이은 민중 서사시로서의 의의를 일정 부분 지니고 있었다면, 이후의 서사시는 김일성과 그 가계의 우상화에 집중하면서 역사적 의의를 잃게 되었다. 게다가 송가적 성격을 서사시에 강조함으로써 서사 약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는 북한 서사시가 역사적 위기 상황에서 민족과 민중의 총체적 열망을 담은 근대 서사시라기보다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당 문학에 철저히 부합하는 장르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42]

신형기는『북한문학사』서술의 연속선에서 서사시의 형식적 속성을 밝히고 있다. 그는 북한 문학이 민족해방서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

41) 박태상, "새로 발견된『서정시 선집』연구," 167~168쪽.
42) 한금화, "북한 서사시의 특성과 창작 양상," 191~192쪽.

다고 본다. 다른 이야기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서사적 구속'이 제도적으로 강화·고착되는 과정에서 북한 문학은 이야기에 의한 지배를 수행해왔다. 당대성을 결여하는 서사시에 가득 차 있는 상징적 모호함에서 반복의 형식이 비롯되는 것이다.[43] 신형기의 논의는 서정시에 서사가 개입되고, 송가 형식의 장르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북한 시문학 장르 고찰에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장르는 텍스트가 생산, 수용, 유포되는 방식에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언제나 유동적이다. 그러나 장르의 역할과 범주는 새로운 요구와 취향, 독창성 등에 의해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 북한 시문학의 장르적 특징을 고찰하는 논의는 북한 시문학의 본질에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원론적이다. 즉 장르 연구는 남한이나 서구의 시각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작동 기제로 보아야 한다. 장르에 대한 기본 이해는 내재적으로 볼 때는 북한 사회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고, 문학적으로 볼 때는 북한 시문학의 보편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근대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남기혁의 "북한 전후시의 전통과 모더니티 연구", 곽은희의 "북한 시와 근대성" 등이 있다.[44] 남기혁은 전통과 모더니티의 길항 작용을 근대시가 처한 운명으로 접근한다. 전후 북한 문학에서 전통이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근대적 계몽의 기획과 사회주의적 사상성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학 조직의 원리로서 이해되었다. 전후의 사회주의 공업화 및 농촌의 협동화 과정에 대한 시적 형상화는 북한 사회가 근대지향성에 지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1950년대의 북한 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틀을 유

43) 신형기, "서사시와 멜로드라마," 131쪽.

44) 남기혁, "북한 전후시의 전통과 모더니티 연구,"『한국현대문학연구』, 제11집(2002); 곽은희, "북한 시와 근대성,"『민족문화논총』, 제29집(2004).

지할 수 있었기에 계급 담론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러나 천리마시대를 거쳐 주체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북한의 시는 전통적인 것,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남기혁은 전통·민족 담론의 복귀가 천리마운동에 필요한 군중동원 노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모더니티의 위기를 은폐하는 데에는 한계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곽은희의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는 혁명전통을 통해 대중이 국가 권력을 내면화하고 주체시대로 향하는 방식을 분석해낸 점이다. 곽은희는 시선의 작동을 통해 대중이 국가 권력을 내면화하는 요소로 박물관과 동상의 시적 형상화에 주목한다. 동상 앞에서 맹세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모습은 시선의 작동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국가 권력의 수행방식을 보여준다는 논지이다. 공업화 과정에서 노출된 근대성의 모순은 숨겨지고, 전체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통해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환원된다. 논자는 북한 문학 고찰에서 발견되는 '이질성'이란 서구의 근대를 중심으로 한 시각으로 보고, 그동안 북한 문학이 서구의 모더니티에 대한 타자의 모습으로 규정되면서 배제의 대상이나 특수성의 한 예로 축소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논의들은 북한 시문학의 내재적 작동원리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실증적인 문학작품 분석의 깊이를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다.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는 사회주의 계열의 작가 연구에 대한 폭을 넓혀주었고, 자연스럽게 월북 이후의 행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연구의 기반이 형성되었다.[45] 월북 시인에 대한 접근은 점차 『혁명 전통의 부산물: 납·월북 문인 그 후』 식의 서술 방식을

45) 전영선,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154쪽.

탈피해 작품세계를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행적이나 정치사적 흐름 속에서의 논의 및 비평사적 관점을 제외하고 작품을 중심으로 월북 시인을 논의한 연구 경향 중심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성우의 "박세영 시 연구"를 비롯해 하상일의 "해방 이후 박세영 시 연구"와 이성천의 "박세영 시를 통해 본 북한 시의 변모 과정", 박승희의 "이찬의 북한 시와 남북한 문학의 단절", 김응교의 『사회적 상상력과 한국시』에 수록된 리찬에 대한 논의들, 남원진의 "리찬의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개작'과 '발견'의 과정 연구", 박선영의 "리찬 시에 나타난 내면성과 시의식의 상관성", 김인섭의 "월북 후 이용악의 시세계", 우남희의 "임호권 시 연구", 김석영의 "월북 시인 조벽암의 시세계" 등이 있다.[46]

월북 시인 가운데 박세영의 해방 전과 후, 북한에서의 작품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자는 한성우이다. 논자는 박세영이 월북하자마자 북한 문학의 규정과 특성에 순응하면서 월북 이전에 보여줬던 날카로운 현실인식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당 문예정책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시작품들을 썼다고 논평한다. 북한 문학은 심미적 가치보다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선전선동과 사상교양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월북 이후 박세영의 시작품 또한 시인의 개성적 면모를 보여주지

46) 한성우, "박세영 시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하상일, "해방 이후 박세영 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7집(2005); 이성천, "박세영 시를 통해 본 북한 시의 변모 과정," 김종회 편, 『북한 문학의 이해 2』(파주: 청동거울, 2001); 박승희, "이찬의 북한 시와 남북한 문학의 단절," 『배달말』, 제30집(2002); 김응교, 『사회적 상상력과 한국시』(서울: 소명출판, 2002); 김인섭, "월북 후 이용악의 시세계," 『우리문학연구』, 제15집(2002); 우남희, "임호권 시 연구"(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석영, "월북 시인 조벽암의 시세계," 『민족문화논총』, 제29집(2004); 남원진, "리찬의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개작'과 '발견'의 과정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2집(2010); 박선영, "리찬 시에 나타난 내면성과 시의식의 상관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2집(2010).

못하고 도식적이고 유형적인 모습에 빠졌다고 논한다. 이런 논의방식이 이성천과 하상일에게서도 보이고 있으나 한상우의 논의를 넘어서진 못한다.

월북 시인들의 북한 내에서의 작품 활동에 대한 평가는 체제에 순응해 북한 시의 전개 과정을 온전히 보여주거나,[47] 과도한 이념의 수용으로 해방 이전에 보여주었던 시의식이 오히려 퇴보하거나,[48] 민족적 상상력의 빈곤으로 단순 구호로 치닫거나,[49] 체제가 제시해준 환상적 이상으로 빨려 들어가 구호와 목적만을 쏟아내는[50] 것과 같이 도식적인 북한 시문학 경향의 하나로 읽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북한의 문예정책에 따라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월북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전망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시각도 있다. 북한의 문예정책과 문학의 자율성 사이에서 대립과 긴장이 가장 적게 나타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적으로나 성취도면에서나 돋보이는 시를 쓰기도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기도 하다.[51]

월북 시인론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는 김응교와 남원진의 논의다. 김응교는 북한문학사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리찬의 시가 개작된 이유를 모든 문화사를 사회주의적 발전 단계로 '흡수'하려는 북한 사회의 흐름과 수령 중심의 역사관을 꾸리기 위해 개작을 꺼리지 않는 작가 자신의 의식 변화 등에서 찾고 있다.[52] 남원진은 북한에서 널리 불리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개작 과정과 판본의 취사선택 후 정착 과

47) 하상일, "해방 이후 박세영 시 연구," 199～200쪽.
48) 우남희, "임호권 시 연구," 50쪽.
49) 박승희, "이찬의 북한 시와 남북한 문학의 단절," 121쪽.
50) 박선영, "리찬 시에 나타난 내면성과 시의식의 상관성," 113～114쪽.
51) 김석영, "월북 시인 조벽암의 시세계," 91～92쪽.
52) 김응교, "리찬의 개작시 연구,"『사회적 상상력과 한국시』, 191～192쪽.

정을 면밀하게 고찰한다. 북한의 자료와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논자의 제언은 시사점이 크다.[53] 김응교와 남원진의 논의는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된 현 시점에서 북한 문학의 연구방법론 및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 대한 발전된 방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의 대표적 시인에 대한 논의에는, 김재용의 "북한 사회와 서정시의 운명", 김태철의 "순간 속에서 잡아낸 영원, 영원히 살아 있는 순간", 노귀남의 "분단 극복의 시적 행로", 김낙현의 "조기천 시 연구" 등으로 각각 김순석, 백인준, 오영재, 조기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54]

김재용은 북한 서정시 역사에 '개성'과 '개인취미' 사이의 갈등이 오랫동안 긴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한때는 개성을 잘 보여준 시로 평가받다가 나중에는 개인취미로 빠져 전락하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시로 김순석의 서정시를 꼽는다. 김순석이 겪어야 했던 수난은 그대로 북한 문학에서 서정시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것이다.

김태철은 북한 시인인 백인준의 작품세계를 통시적으로 개관하면서 서정시의 '순간성'이 포착한 '영원성'의 이야기로 미학적 특징을 규정하지만,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수사로만 그친 감이 있다.

노귀남은 남북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의 하나로서 오영재를 논의한다. 김일성 계관시인인 오영재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인민들에

---

53) 남원진, "리찬의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개작'과 '발견'의 과정 연구," 156쪽.

54) 김재용, "북한 사회와 서정시의 운명," 『분단구조와 북한 문학』(서울: 소명출판, 2000); 김태철, "순간 속에서 잡아낸 영원, 영원히 살아 있는 순간," 『문학마을』, 겨울호(2003); 『문학마을』, 봄호(2004); 노귀남, "분단 극복의 시적 행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 문학의 지형도』(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김낙현, "조기천 시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게 선전 교양하는 시 작품을 주로 쓴 시인이다. 논자는 오영재의 시 가운데 보통 사람의 서정성이 드러나는 시에 주목한다. 그러나 공존의 방법 찾기는 통일 문학 내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북한 시인을 평가할 때 북한의 시선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문제의식의 하나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연대에서 추구된 공존은 북한 문학의 실상을 축소 평가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낙현은 북한 문학 형성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기천의 삶과 시세계를 새롭게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의 의의는 첫째,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조기천의 전기적 사실과 소련파 고려인 시인으로서 초기 북한 문학에서의 역할을 조명한 점, 둘째, 소련에서 발표했던 작품을 새롭게 발굴해 문학적 출발점을 규명한 점, 셋째, "백두산"에만 한정했던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작품세계를 대상으로 한 점, 넷째, "백두산" 창작의 배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논증한 점 등이다. 소련에서 창작한 시는 디아스포라(diaspora)적인 고려인 문학의 특수성을 띠는 것으로 표층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표출했지만, 이면적으로는 민족해방의식이 내재해 있었다. 북한 대내외적 정치 상황에 따라 개작된 "백두산"의 초간본을 발굴하고, 개작 과정을 논증한 점은 판본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던 그동안의 연구 한계를 극복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북한 시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사상성과 서정성의 결합이기에 문학성을 탐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개 장르적 특징을 논의하거나, 작가에 주목해 접근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미시적이고 섬세한 분석틀보다는 내재적-객관적 방법을 장르나 작가에 적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근

대성 논의는 북한 문학을 오히려 다각적으로 살펴볼 방법론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연구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이론적 잣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북한 문학 연구자 모두의 과제라 할 것이다. 분석틀 개발은 문학론의 보편적 잣대를 어떻게 북한 문학 연구에 적용할 것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장르론과 작가론에 집중된 문학론적 접근이 질적 측면에서도 풍부하게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 시문학 연구

북한 문학 연구는 이질적인 현상 중심으로 논의되던 경향이 점차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경향 중심으로 방향이 선회하면서, 내재적인 방법론 및 문학론적 접근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문학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민족적 연대를 회복할 연결고리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민족 문학 내지 통일 문학으로서 접근하자는 움직임도 형성되었다.

북한 문학에는 정치적인 요소 외에 분명히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에, 큰 범주의 통일 문학 밑에 작은 범주의 북한 문학과 남한 문학이 들어갈 여지가 마련될 수 있다.[55] 민족 문학 내지 통일 문학으로서 남북한 문학을 절충할 수 있는 연구 경향은 북한 문학 연구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잠재되어 있었다. 김재홍은 남한에서 19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한 민중적 내용의 민족적 양식화라는 민중 지향적 문학 경향은 그 목적과 내용은 달라도 다분히 북한

55) 박태상, "북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북한 문학의 현상』(서울: 깊은샘, 1999), 58쪽.

의 인민성 원칙 및 민족적 특성 강조와 서로 상통한다고 보았다.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중적 내용의 민족적 양식화를 추구하는 남한의 민중 문학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의 계급주의 문학은 그 목적과 지향은 상이하지만 민족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공통성을 지니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56]

이와 같이 남북한의 차이 속에서 연대적 요소를 찾는 논의로 심원섭의 "1950년대 북한 시 개관"[57]이 있다. 논자는 개성적인 면모를 지닌 '예외적인 북한 시'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58] 1950년대 중반의 필화 사건은 '도식주의' 문제가 중대한 쟁점으로 떠오른 1950년대 중반의 북한 문예비평사 논의를 통해 자세히 논파된 바 있다.[59]

주체사상 이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역동적인 면모를 1950년대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김성수가 말하는 '리얼리즘의 미학'틀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 김성수는 우리 근현대문학사의

---

56) 김재홍, "북한 시의 한 고찰," 278쪽.

57) 심원섭, "1950년대 북한 시 개관," 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서울: 평민사, 1991).

58) 논자는 리순영, 안막, 전초민의 '부드러운 작품' 몇 편을 둘러싸고 일어난 '필화사건'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예외적인 작품에 대해 논한다. 1955년 『조선문학』 4월호에 실린 리순영의 "산딸기", "노을", "봄"이 실린 이후 『조선문학』 1955년 6월호에는 당의 공식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강도 높은 비판 이후 모두들 2~3년간의 공백기를 갖는다. 논자는 리순영의 이 작품들이 비록 복구 건설 및 경제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영웅적인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제시'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사랑이라는 소재와, 건설이 진행되는 배경적 상황을 통해서 당의 문예강령을 대중에게 친밀하게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작품으로 평가한다. 심원섭, "1950년대 북한 시 개관," 109~111쪽.

5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수(김동훈)의 "전후문단의 도식주의 논쟁," 『문학과 논리』, 제3호(파주: 태학사, 1993)와 "1950년대 북한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1999)를 참조할 것.

전개 과정이 넓은 의미로 볼 때 리얼리즘 문학이 주된 흐름이었고, 분단을 극복하는 예술방법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주체사실주의' 자체는 남한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남북 문학의 미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통합방안으로 '낮은 차원의 미적·정서적 연대'를 모색해볼 수 있다.[60] 미적으로 순도 높은 형상화를 획득하진 못했지만, 정서적 측면에서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요소는 북한 시의 변화를 확인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김일성 사망 이후조차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61] 『주체문학론』 이후 변화 과정에 주목한 논의들은 양적인 우세를 보여주었다.

『주체문학론』의 서정시 논의와 함께 북한 시의 서정성을 통해 정서적 연대를 고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찬열의 "1990년대의 북한 시", 박상준의 "북한 서정시 연구"와 함께,[62] 『북한 문학의 이해 2』에 수록된 고봉준의 "남북한 시문학의 접점과 근대문학", 박주택의 "북한 산수시의 전개 양상" 등과 더불어,[63] 『북한 문학의 이해 3』에 수록된 박주택의 "『주체문학론』 이후에 나타난 현대시의 변화 양상", 이성천의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시의 행방", 이선이의 "자연의 발견과 서정의 재인식" 등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이후의 시를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64] 박승희의 "북한 시의 서정과 개성 문제", 홍용

60) 김성수, "북한 현대문학 연구의 쟁점과 통일 문학의 도정," 『어문집』, 제91집 (2006), 79쪽.

61) 박상천, "김정일 시대의 북한 시문학," 『통일논총』, 제17호(1999).

62) 류찬열, "1990년대의 북한 시," 이명재 편, 『북한 문학의 이념과 실체』(서울: 국학자료원, 1998); 박상준, "북한 서정시 연구," 『겨레어문학』, 제23집(1999).

63) 김종회 편, 『북한 문학의 이해 2』(파주: 청동거울, 2002).

64) 김종회 편, 『북한 문학의 이해 3』(파주: 청동거울, 2004).

희의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시의 미적 가능성”, 김용락의 “북한 시의 개인주의와 서정의 문제”[65] 등도 동일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들 논의는 1990년대 북한 서정시의 긍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남북한 문학의 동질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는 데 그 공통점이 있다. 이념적 성향이 약화된 서정시에서 민족적 원형질의 요소를 찾고, 연대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서정시의 변화는 『주체문학론』과 연계해 내재적으로 보는 관점과 상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서정시의 존재는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의 길을 확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일상과 자연을 매개로 개인을 발견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1990년대 이후의 서정시들은 남북한 정서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기에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일상과 자연은 단순히 소재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친화성과 원형을 환기할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치성을 배제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는 의도 자체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정치적 의도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당의 계획, 실천, 검열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북한에서 과연 순수한 서정시가 존재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읽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산수시는 오히려 국토의 아름다움을 통해 조국애 및 애국심을 고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적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당 정책의 하나로 일부 제한적으로 출현한 양상이긴 해도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매우 뜻깊다 할 것이다. 남북 상호관계가 개선되고 창작 여건이 바뀔 경우 이와 같은 시문학이 충분히 나올 여지는 더욱 커지

65) 박승희, “북한 시의 서정과 개성 문제,” 『우리말글』, 제35집(2005);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시의 미적 가능성,” 『한국문학논총』, 제39집(2005); 김용락, “북한 시의 개인주의와 서정의 문제,” 『민족문화논총』, 제34집(2006).

기 때문이다.

동질성 회복의 연장선상에서 정서적 연대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시는 '통일시'이다. 홍용희는 민족적 연대의식과 공감대를 가장 깊이 느끼게 하는 서정시 유형을 분단 극복과 통일 염원을 다룬 작품으로 본다.[66] 그러나 북한 시인들은 당에서 결정한 문예이론의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탈이념적인 소재임에도 예술적 독창성과 유연한 사고의 깊이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숙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시"[67]는 남북의 정서적 연대가 가능한 주제에서 각자 다른 길을 걷는 양상을 재확인해준다. 논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후 2000년대의 북한 통일시가 민족의 현실,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고민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당위적 명제로 설정해 격정과 감격의 어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체제를 선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화되는 2000년대의 통일시는 1990년대 서정시에서 발견했던 연대감, 동질성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교조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남한과 북한 문학의 생성 토대 및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다. 일부 요소에서는 연대적 동질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질적인 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 문학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민족적 연대를 회복할 연결고리를 모색하는 작업은 북한 문학 연구 초기부터 잠재되어 있었다. 북한 문학 연구 초기에는 이질성을 통해 서로 간의 차이를

---

66)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시의 미적 가능성," 125쪽.

67) 이상숙,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시,"『현대문학이론연구』제36집 (2009).

부각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제한적인 일부 현상에 머문다 할지라도 1950년대 북한 문학 형성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연대를 가질 수 있는 요소의 발견은 분명 유의미한 것이다.

도식성의 문제 인식과 반성이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 기인한 것일지라도 분명히 1990년대 북한 시문학에 변화가 생긴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존재한다. 이들 논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문학적 내지 민족적 동질성을 발견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상과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서정시 논의는 양적인 면에서 우세하지만 논의의 유사성이라는 한계로 이어졌다. 논의의 중복현상은 그만큼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민족의 '동질성' 내지 '민족 정서의 원형질'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중요성이 있음에도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성과로 이어기지 위해서는 관심의 증폭 외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 논문은 지금까지 축적된 북한 시문학 연구사를 정리하고 검토하면서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연구 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립항적 연구는 남북한체제를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북한 문학을 비판하는 논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 1990년대 초기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내재적-객관적 연구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북한 문학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폭넓게 수용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작동원리와 이데올로기, 문예이론을 먼저 이해한 후에 통시적·공시적 고찰이 진행되었다. 이로써 대립항적 연구에서 보이던 맹목적 부정이나 고발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주체사상 및 주체문학론 등이 북한 문학을 형성하고 규정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에 포괄함으로써 학문적 대상인 북한 문학 연구의 객관성과 실증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학론적 연구는 각론으로서 북한 문학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연구방법을 보여주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지만 문학론적 접근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미시적이고 섬세한 분석틀보다는 내재적-객관적 방법을 장르나 작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북한 시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사상성과 서정성의 결합이기에 문학성을 탐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문학의 차이를 강조하는 장르론에서 내재적 원리로서 장르 변화 과정에 주목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장르론적 연구 결과가 양적·질적 성과로 모아졌다. 근대성 구현 양상을 살피는 작품론적 성격을 지니는 연구와 함께 월북 시인론 및 재북 시인론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넷째,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방법이 있다. 이런 연구방법은 남북한 문학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민족적 연대를 회복할 연결고리를 모색하고, 민족 문학 내지 통일 문학으로서 접근하자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북한 문학 연구 초기부터 잠재되어 있던 방법이지만 2000년대를 전후해서 양적 성취를 이루었다. 리얼리즘의 역동

성이 구현된 서정시나 이념적 성향이 약화된 서정시 연구는 민족적 원형질의 요소를 찾고 연대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분단체제가 형성되고도 반세기 이상이 흘렀다. 단절과 이질화를 확인하던 북한 문학 연구는 민족 문학, 통일 문학의 실천적 접근을 모색할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대립항적 접근에서 동일성 모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 성과는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남한과 서구 문학의 잣대에서 북한 문학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작동원리로 이해함으로써 북한 문학의 연구 방향은 점차 실증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론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연구의 양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문학 연구에 남아 있는 과제를 몇 가지 언급함으로써 연구사 정리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자료의 문제다. 초기 북한 문학 연구의 난제로 지적되었던 자료 접근의 어려움은 자료의 취사선택 및 판본의 문제로 선회하게 되었다. 판본 및 개작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의는 과학적·실증적 분석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시사한다. 원전비평을 통한 접근은 향후 연구의 질적 성취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둘째, 다양성의 문제다. 특정 주제에 대한 유사 논문의 중복현상은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총론에 비해 미시적인 연구 성과가 적다는 것은 이론틀의 개발과 함께 연구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주제와 방법론의 다양성을 통해 이론의 빈곤을 극복하고 학문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집중성과 전문성의 문제다.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 이후 북한 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연구 성과 또한 양적인

팽창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점증한 관심에 비해 질적 성취는 오히려 빈곤한 편이다. 대북관계 및 대북정책이 정체된 2000년대 후반의 연구 성과가 매우 적다는 사실과 논의의 중복현상은 일회적인 관심의 반증이다. 북한 문학에 대한 학문적 집중성과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고민할 때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7월 30일 / 채택: 8월 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5).
_____, 『북한의 시가문학』(서울: 문학과 비평사, 1990).
김용직, 『북한문학사』(서울: 일지사, 2008).
김응교, 『사회적 상상력과 한국시』(서울: 소명출판, 2002).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 문학』(서울: 소명출판, 2000).
박태상, 『북한 문학의 현상』(서울: 깊은샘, 1999).
_____, 『북한 문학의 동향』(서울: 깊은샘, 2003).
오성호, 『북한 시의 사적 전개 과정』(서울: 경진, 2010).

2. 논문

강정구, " '노동'을 소재로 한 최근의 북한 시," 김종회 편, 『북한 문학의 이해 3』(파주: 청동거울, 2004).
고봉준, "남북한 시문학의 접점과 근대문학," 『북한 문학의 이해 2』(파주: 청동거울, 2002).
곽은희, "북한 시와 근대성," 『민족문화논총』, 제29집(2004).
구 상, "북한의 시," 『시대문학』, 창간호(1987).
김경숙,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 과정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북한현대시사』(파주: 태학사, 2004).
_____, "개작 과정을 통해서 본 1950년대 북한 서정시의 특징," 『한국문학연구』, 제5호(2004).
김낙현, "조기천 시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대행, "장르로 본 북한의 시가문학," 『북한』, 4월호(1986).
김석영, "월북 시인 조벽암의 시세계," 『민족문화논총』, 제29집(2004).
김성수, "1950년대 북한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1999).
_____,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제3집(2000).

_____, “북한 현대문학 연구의 쟁점과 통일 문학의 도정,”『어문집』, 제91집(2006).
_____(김동훈), “전후문단의 도식주의 논쟁,”『문학과 논리』, 제3호(파주: 태학사, 1993).
김영철, “북한 현대시의 장르론적 고찰,”『국어국문학』, 제135호(2003).
김용락, “북한 시의 개인주의와 서정의 문제,”『민족문화논총』, 제34집(2006).
_____, “북한 시의 이론적 특성에 대하여,”『시와 반시』, 겨울호(2000).
김윤식, “북한 문학 50년의 비평사적 검토,”『북한문학사론』(서울: 새미, 1996).
김인섭, “월북 후 이용악의 시세계,”『우리문학연구』, 제15집(2002).
김재홍, “북한 시의 한 고찰,”『카프시인비평』(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_____, “해방 40년 남북한 시의 한 변모,”『한국현대시사의 쟁점』(서울: 시와 시학사, 1991).
김준오, “조선족 문학·한국 문학·북한 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한국문학논총』, 제20집(1997).
김지민, “북한 서정시 연구”(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태철, “순간 속에서 잡아낸 영원, 영원히 살아 있는 순간,”『문학마을』, 겨울호(2003).
_____, “순간 속에서 잡아낸 영원, 영원히 살아 있는 순간,”『문학마을』, 봄호(2004).
남기혁, “북한 전후시의 전통과 모더니티 연구,”『한국현대문학연구』, 제11집(2002).
남송우,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문학논총』, 제39집(2005).
남원진, “리찬의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개작’과 ‘발견’의 과정 연구,”『한국문예비평연구』, 제32집(2010).
노귀남, “분단 극복의 시적 행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북한 문학의 지형도』(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노동일·김진향, “북한연구방법론 고찰,”『평화연구』, 제23집(1998).
류찬열, “1990년대의 북한 시,” 이명재 편,『북한 문학의 이념과 실체』(서울: 국학자료원, 1998).
박상준, “북한 서정시 연구,”『겨레어문학』, 제23집(1999).
박상천, “김정일 시대의 북한 시문학,”『통일논총』, 제17호(1999).

_____, “북한 문학 연구의 경과,”『민족학연구』, 제4집(2000).
박선영, “리찬 시에 나타난 내면성과 시의식의 상관성,”『한국문예비평연구』, 제32집(2010).
박순선, “북한 서정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박승희, “이찬의 북한 시와 남북한 문학의 단절,”『배달말』, 제30집(2002).
_____, “북한 시의 서정과 개성 문제,”『우리말글』, 제35집(2005).
박은미, “주체사상 시기의 북한의 시 연구,”『겨레어문학』, 제30집(2003).
박주택, “북한 산수시의 전개 양상,”『북한 문학의 이해 2』(파주: 청동거울, 2002).
_____, “『주체문학론』 이후에 나타난 현대시의 변화 양상,” 김종회 편,『북한 문학의 이해 3』(파주: 청동거울, 2004).
박철석, “남북 시문학 비교 연구,”『동아논총』, 제30집(1993).
성기조, “북한의 시문학 40년사 연구,”『북한』, 7월호(1987).
_____,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적 무기의 역할,”『북한문화예술 40년』(서울: 신원문화사, 1989).
손광은, “북한 시의 위상과 동질성 회복 문제,”『용봉논총』, 제24집(1995).
송명희,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집(1999).
신행자, “북한 서정시 연구”(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신형기, “서사시와 멜로드라마,”『통일연구』, 제8권 제1호(2004).
신형기·오성호,『북한문학사』(서울: 평민사, 2000).
심원섭, “1950년대 북한 시 개관,” 한국문학연구회 편,『1950년대 남북한 문학』(서울: 평민사, 1991).
염철, “1970~1980년대의 북한 서정시 고찰,” 이명재 편,『북한 문학의 이념과 실체』(서울: 국학자료원, 1998).
윤여탁, “한국전쟁 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한국현대시사의 쟁점』(서울: 시와 시학사, 1991).
_____, “북한 시사의 정리,”『시와 반시』, 겨울호(2000).
윤은애, “북한 시문학의 서정성 연구”(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오성호,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배달말』, 제28집(2001).
우남희, “임호권 시 연구”(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우대식, “해방기 북한 시문학 연구”(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경영, “한국전후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_____, “1990년대 북한의 서정시 연구,”『어문학』, 제84집(2004).
이선이, “1990년대 북한 서사시의 변화와 한계,”『북한 문학의 이해』(파주: 청동거울, 1999).
_____, “자연의 발견과 서정의 재인식,” 김종회 편,『북한 문학의 이해 3』(파주: 청동거울, 2004).
이상숙, “북한 문학의 전통론 연구; “민족 형식, 민족적 특성”의 시(詩)적 형상화를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2호(2003).
_____, “북한 문학의 전통과 민족적 특성,”『한국어문학연구』, 제46집(2006).
_____, “북한 서정시에 나타난 민족적 특성,” 북한연구학회 편,『북한의 언어와 문학』(경인문화사, 2006).
_____,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시,”『현대문학이론연구』, 제36집(2009).
이성천, “박세영 시를 통해 본 북한 시의 변모 과정,” 김종회 편,『북한 문학의 이해 2』(파주: 청동거울, 2001).
_____,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시의 행방,” 김종회 편,『북한 문학의 이해 3』(파주: 청동거울, 2004).
이지순, “북한 시문학의 이데올로기적 담론구조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전영선, “북한 문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현대북한연구』, 제7권 3호(2005).
정유하, “60년대 북한 시문학의 특성과 전개 양상,” 이명재 편,『북한 문학의 이념과 실체』(서울: 국학자료원, 1998).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북한연구방법론』(파주: 한울, 2003).
하상일, “해방이후 박세영 시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7집(2005).
한국비평문학회,『혁명 전통의 부산물: 납·월북 문인 그 후』(서울: 신원문화사, 1989).
한금화, “북한 서사시의 특성과 창작 양상,”『겨레어문학』, 제30집(2003).
한성우, “박세영 시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한춘우, “북한 서정시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홍용희, “1950년대 남북한 시의 비교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_____, “해방 50년 북한 시의 역사적 고찰,”『시와 시학』, 겨울호(1995).
_____,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시의 미적 가능성,”『한국문학논총』, 제39집(2005).

Abstract

The Result and Present Condition ofthe Studies on North Korean Poetry

Yee, Ji-sun(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studies on North Korean poetry during the past 20 years. This paper is viewed in four ways that contain oppositional approach, internal-objective approach, literary-theoretical approach, approach toward recovering ethnic hom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oppositional approach that presented late in the 1980s and early in the 1990s shows negative cognitions about North Korean poetry. The internal-objective approach that has been applied to evaluate North Korean poetry empirically since 1990 tries to overcome ideological bias and shows to retain objectivity. The literary-theoretical approach that has reviewed literal details as literary criticism shows to center on interest in genre and poets. The approach toward recovering ethnic hom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 has lain behind since the beginning of the study. This way is one of endeavors to find basic

essential for homogeneity and to recover conscience solidaire as a ethnic community.

The qualitative poverty of stud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ative expansion for academic standards. In order to activate the studies on North Korean poetry, researchers should try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original texts, a wide variety of subjects, the professional attitude.

Keywords: North Korean poetry, oppositional approach, internal-objective approach, literary-theoretical approach, ethnic homogeneity, quantitative expansion, qualitative poverty